

오만해양제국의 융성과 추락*

송 경 근**

차 례

- I. 서론
- II. 포르투갈 진출이전의 오만인의 해상활동
 - 1. 이슬람 이전의 오만의 상거래
 - 2. 이슬람 이후의 오만의 해상활동
- III. 포르투갈의 진출
 - 1. 포르투갈의 신헌로 개척과 인도양 진출
 - 2. 포르투갈의 오만지배
- IV. 포르투갈의 추방과 해양제국의 건설과 발전
 - 1. 포르투갈인의 추방
 - 2. 해양제국의 발전
- V. 해양제국의 분열과 추락.
- VI. 결론

* 본 논문은 2007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임.

** 조선대학교 아랍어학과 교수

<Abstract>

The Rise & Fall of Omani Oceanic Empire

Song, Kyung-Keun

Chosun University

Archaeological evidence suggests that an early form of civilization existed in Oman at least 5,000 years ago. The Omanis were among the first Arabs to embrace Islam, back in 7th century AD, and Oman became an Ibadhi state ruled by an elected religious leader, the Imam. Oman's position on som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trade routes between Africa and Asia has given it a unique dimension.

The Portuguese arrived by force in 1507 with a view to protecting supply lines to the east. They were driven out of their main bases, first from Hormuz in 1622, eventually from Muscat in 1650, by Sultan ibn Saif Al-Ya'aribi. During al-Ya'aribah Dynasty(1624-1744), Oman entered the prosperous period and many of its great buildings and forts were built. But tribal warfare over the election of a new Imam halted this expansion and Persian forces invaded the coastal areas. In 1744, Omani tribes elected Imam Ahmad ibn Said, founder of the present Al-Busaidi Dynasty. He expelled the Persian invaders, united the country, restored Oman's fortunes and moved the capital from the interior to Muscat. The Omani empire reached the height of its power in the mid-19th century under Said ibn Sultan. He extended control all the way to Zanzibar and Mombassa in Africa, and to parts of Persia, Pakistan, and India. When Said ibn Sultan died in 1856 the empire was divided between his two sons. One became the Sultan of Zanzibar and the other, the Sultan of Muscat and Oman. Thereafter the fortunes of Oman as a maritime power declined, accelerated by the introduction of steamers. This put the Omanis at a disadvantage since their ships ceased to be competitive in the carrying trade. The British exacerbated this situation by pressing Oman to end the trade in slaves

and arms for which it had been known. Many of the sultan's advisers were British and the army itself was commanded by British officers.

Key Words : Oman, Imam, Al-Ya'aribah Dynasty, Al-Busaidi Dynasty, Zanzibar

I. 서론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오만은 인구가 310만 명의 소국이나 국토의 면적은 309,500km²로 남한에 3배 정도 되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에 오만 북부와 아랍 에미리트의 현 영역에 마간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으며, 향료 무역을 통해 그 지역을 여러 나라에 알려졌다. 오만이라는 이름은 예멘의 우만이라는 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아랍 부족에서 유래한다. 오만은 원래는 아랍인의 땅은 아니었으나 아랍의 출발지인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이유로 이슬람이 시작되기 수 세기 전에 이미 아랍화가 시작되었고,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이 확산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랍 화되어 있었다.

활발한 국제 해상 무역활동 때문에 해안지대에는 외부에서 이주하여 온 종족이 많으나 산악지대인 내륙은 순수한 아랍인이 대부분이다. 종교적으로 대부분이 무슬림이기는 하나 주민의 75%가 무슬림 소수 종파인 카와리지 계열¹⁾의 이바디파에 속한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바디파의 지도자 이맘이 국가의 지배자와 동일하거나 동일 시 되는 경향이 있다.

오만은 활발한 국제 무역과 교통 요지인 관계로 늘 해상 국제 무역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며, 유명한 배사람 신드바드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었다. 포르투갈이 동방과의 무역을 위해 인도양으로 진출하여 오면서 오만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이곳을 점령 지배하였으며, 해상

1) 원래는 제4대 칼리파인 알리 진영에 속했던 이들이었으나, 알리와 무와이야 간의 칼리파 계승문제가 협상에 의해 결정되려는 것을 반대하여 알리 진영을 떠났다. 그들은 이로 인하여 “이탈자”라고 불렸다. 그들은 이런 문제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한때에는 이슬람 제야 세력의 중심 세력을 이루었으나,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슬람 제국의 와해를 도모 하였던 것과 극도의 평등사상 때문에 발생하는 내부의 분열과 무질서로 인하여 실패 하였다. 이들은 8세기 초에 그들의 힘을 상실하였고, 제국의 외딴 곳에 잔존하게 되었다. 이바디파는 카와리지파 중에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잔존 세력이다. 이바디파는 비밀리에 이맘이라는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뽑았다. 이슬람의 주류인 순니가 쿠란은 태초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반면에 그들은 쿠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순니의 말리키파와 비슷한 종교 관행을 유지하기에 가끔 말리키파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기도 한다.

무역 거점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오만인의 저항으로 물러났다. 이후에 오만인들은 강력한 해군 및 상인 함대를 구축하여 인도양에 거대한 해양 제국을 융성 발전시켰다. 이들의 번영은 20세기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아라비아 반도의 조그만 나라가 포르투갈이라는 해양 강국을 물리치고, 이어서 유럽의 강대국들과 함께 인도양을 지배하였던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특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오만인의 대 포르투갈 투쟁과 그들의 해상 제국의 번성과 쇠락을 연구하여 보는 것은 많은 흥미로운 점을 추적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된다.

오만의 해양제국의 융성과 쇠되는 국제 해양 무역사에서 중요한 사실이기도 하나, 오만이 인구 310만의 소국이며,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변방국이다가 보니, 오만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지를 않다. 국내에서 오만의 해양 무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서구나 중동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다만 Muhammad Sabir Ibrahim 'Arab의 <Dawlat al-Ya'aribah baina al-Wahdah al-Wataniyah wa al-Intisaaraat al-Kharijiyah>가 알-야으리바(Al-Ya'aribah)(1650-1737)조를 다루면서 오만해양제국 역사의 일부를 연구하고 있다. Husein Abd Ghanim의 Oman은 Oman전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본 논문 연구에 필요한 오만의 근세 해양 역사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오만 정보부(또는 공보부) <Oman fi al-Tarikh>는 오만을 소개하면서 근세 오만의 해양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연구 순서는 근세 이전의 오만 해상무역사, 포르투갈의 인도양 진출과 오만 점령, 오만인의 대 포르투갈 항쟁, 오만의 해양 제국 수립과 발전, 쇠락 순으로 진행한다. 약소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오만과 같은 소국이 대 해양제국을 이룬은 많은 연구 의욕을 불러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이 연구를 통하여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만 해양 제국의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과 성공 요인을 추출하여 보고, 강대 세력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나를 알아보겠다.

II. 포르투갈 진출의 이전의 오만인의 해상활동

1. 이슬람 이전의 오만의 상거래

언제부터 사람이 오만에 살았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기원전 4,000년 전에 고고학적으로 이미 상당히 복잡한 사회 구조를 보이는 무덤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곡식, 과일 등의 각종 농작물이 경작되었을 알 수 있다. 기원전 3,000년 전에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듯하다. 기원전 3,000년경에 마간이라는 나라가 오늘날의 북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에 펼쳐져 있었다. 이 나라는 기원전 2370년에 지중해 안으로부터 서부 걸프지역까지를 다스렸던 악카드 바빌론 왕국과 교역을 했다고 사르곤 왕의 문서에 적혀있다(al-Liwati 2001, 7). 마간 왕국의 부는 오만의 바티나 해안의 수하르 언덕 주위에서 발견되는 풍부한 동광에 의존하였다. 이들은 엘람이나 수메르의 왕국들에게 훌륭한 무기를 만드는 재료를 공급하면서 이 지역의 동(銅)무역을 장악하였다. 마간 왕국은 인도와 아프리카 동부 해안으로부터 목재와 향료를 구입하였다. 마간 왕국은 기원전 2,000년에 이 지역의 사막화와 철기의 등장 에 따른 동 의 중요도 감소로 쇠약하여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송경근 2004, 19).

예멘과 오만 남부는 몰약과 유향이 많이 산출되었다. 특히 오만의 도파르 지방에서 나는 유향은 오늘날에도 최상급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향료는 고대 부터 오늘날까지 약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과거에는 약재보다는 그 신비한 향 의 냄새와 귀중함 때문에 주로 신전의 제사에 쓰였다. 이 때문에 오만은 기원 전 1,000년부터 중동과 유럽의 고대 신전의 향료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고, 이것을 팔기 위하여 해상 무역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유명한 오만의 향료는 페르시아인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오만 근처에 있던 그들은 오만의 향료를 손 에 넣기 위하여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 2세기까지 현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의 땅을 정복 지배하였다. 하지만 3세기 예멘에서 마리브담의 붕괴가 일어났으 며, 이 때문에 예멘에 물 부족 상황이 일어나자 남부아랍부족의 하나인 아즈

드족이 오만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들은 페르시아인들을 수하르 지방으로 밀어냈고, 이 후 이슬람이 출현할 때까지 아랍인과 페르시아인들이 오만에서 동거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송경근 2004, 19).

이렇게 향료와 동으로 인하여 고대부터 해상 무역에 참여하게 된 오만 지역 주민들의 전통은 오만인들의 해양 무역의 전통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16세기에 유럽의 강대국들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소국(小國) 오만이 해양제국이 될 수 있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2. 이슬람 이후의 오만의 해상활동

오만의 해안은 세계를 향해 열려 있었다. 항해자들은 고대로부터 걸프만,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인도와 원동으로 가는 도중에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진 만에 자리 잡고 있는 오만의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가 있었다. 마르코 폴로나 이븐 바투타와 같은 중세의 유명한 여행자들은 오만의 무스카트, 와라야, 칼랄, 수르, 수하르 등의 도시를 방문하였으며, 그 안에 이루어지는 활발한 무역과 엄청난 부에 관하여 보고했다(카이 2006, 122).

오만은 고대에는 향료의 유일한 생산지로서 독점권을 이용하여 부를 획득하였으나, 중세에 들어와서는 발달된 항해술을 바탕으로 중국에 까지 이르는 동서해상무역을 통하여 오만을 거쳐 가는 물자들을 거래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중세 무역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진주와 같은 자신들의 수출품을 통해서도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으나 상아와 별갑, 다이아몬드와 금, 비단과 도자기 등 실은 배들이 동아시아로부터 오만에까지 오면서 무역 거래를 통하여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에리트레아 항해지에 나오는 로마 상인들처럼 아랍 선장들은 계절풍을 이용하였다. 4월부터 9월까지의 남서계절풍을 이용했으며, 겨울에는 더 강한 북동계절풍을 이용하였다. 배들은 수하르에서 보통 11월과 12월 북동계절풍이 부는 동안 출항했다. 인도, 말레이시아 해안과 싱가포르와 남지나해 사이의 섬들에 정박지가 마련되었다. 여름 내내 배들은 대부분 중국의 자이툰 시(광조우)에 머물렀다. 가을이 되면

다시 순풍을 받아 4개월이 걸리는 귀향을 시작 했다(카이 2006, 119-120).

중세 오만인들은 조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았다. 그들은 제련 기술이 떨어져 질이 좋은 철로 만든 못이 없는 대신 질긴 섬유를 이용하여 선판들을 하나의 선체로 결합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질이 좋은 재목이 없어 배를 만들기 위하여 인도에서 재목을 수입하였다. 이렇게 해서 궤매어 만든 배는 태풍에는 약했으나 신축성이 좋았다. 산호초에 좌초되었을 때에 고정된 선판을 가진 배에 비하여 배가 쉽게 부서지지 않았으며,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하였다(Muhammad al-Rawas 1995, 338-341). 이와 같은 조선 방식은 배를 대포로 무장하게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런 아랍의 배를 서구에서는 다우선이라고 불렀다. 다우선은 중세 오만 선박의 주축을 이루었고, 근세에 들어와서도 유럽의 식민 세력에 저항하며 오만의 해양세력이 뻗어 나갈 때에도 여전히 나름대로 가치 있는 역할을 하였다. 오만인들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해상 무역의 전통처럼 이슬람 시대 이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이 발전시켰던 항해술과 조선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천혜의 항구 등도 근세의 오만인들이 외세를 물리치고 이룩한 해양제국 건설의 밑거름이 되었다.

III. 포르투갈의 진출

1. 포르투갈인의 신향로 개척과 인도양 진출

유럽은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원거리 무역이 크게 발전했고,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크게 융성하게 되었다. 많은 동방의 산물들이 이탈리아 상인을 통하여 비싼 값으로 유럽에 소개되었다. 따라서 유럽은 동방의 산물들을 좀 더 싼 값에 풍부하고,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가던 나라는 포르투갈이었다. 포르투갈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육로나 해로로 아프리카와 대서양을 잇는 유럽과 연결 짓는 고리와도 같은 곳이었다. 또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지중해의 기독교적 영향, 유대인

그리고 아랍인과의 오랜 교류로 해양과학과 기술이 축적되고 최상의 준비가 갖추어진 곳이기도 하였다. 여기다가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빈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권을 벗어나려는 팽창심리가 가장 팽배하였던 곳이기도 하였다. 또한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의 몫을 최소치만 남기고, 얼마든지 다 차지할 수 있는 중국과 달리, 유럽은 사회의 각 계급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이 대체로 고정적이었으며, 아무리 지배 계급이라도 하층민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일반 백성을 착취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몫을 늘려야 했다. 이것은 포르투갈의 활발한 대외 진출 요인이 되었다(왕지아평 2007, 44-45). 그리고 포르투갈이 지리적 위치상 유럽 남서쪽의 끝머리이고 또한 동북부의 무역풍과 카나리아 군도의 조류에 의해 형성된 해상통로의 어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포르투갈이 언제고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다가 포르투갈인들은 해양활동에 대한 천부적 기질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1141년 스페인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더 이상 그들의 영역을 확대할 수 없게 되었기에 포르투갈의 전사출신의 귀족들과 기사들은 실직 상태가 되어 외부 진출을 원하고 있었다(양승윤 2003, 343-344). 그들은 해양과학과 항해술에서 유럽의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었다. 레콩기스타(Reconquista) 과정에 배양된 그들의 십자군 정신은 더 많은 세계를 기독교의 세계로 바꾸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행하여야 할 의무로 생각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들은 열정적으로 해외로 나갔다. 결국 그들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이르는 무역로를 개척하였다. 인도양에 진출한 포르투갈은 이슬람 - 인도 연합 세력을 쳐부수고 인도양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는 1498년 인도로 가는 도중에 오만을 방문하였으며, 인도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1506년 걸프만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포르투갈과 인도사이를 오갈 때에 오만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1507년에 인도 총독 알부케르케의 지시 하에 페르시아 만에 있는 아랍의 배를 닥치는 대로 부수면서 오만을 점령하였고, 호르무즈는 그들의 주 무역 기지가 되었다(Owtram 2004, 44). 오만인들은 그들이 전에 맞서 본 적이 없는 대포로 무장한 포르투갈의 강력한 해군에 속

절없이 굴복해야했고, 포르투갈인의 전 오만 해안 점령은 한 달 안에 이루어질 정도로 신속하였다. 이렇게 오만 해안이 한 달 안에 포르투갈에 의하여 점령된 것은 그들의 무력이 월등한 것도 이유이나, 그 당시 오만 자체가 여러 세력으로 갈라져 서로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에 대하여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또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또한 오만의 지리적 중요성, 주변의 타 지역과 비교하여 풍부한 자연, 방어하기 좋은 험한 산세 등은 포르투갈이 오만 점령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나서도록 유도했다. 그들은 1515년 줄파라에 그들의 세관을 세우고 걸프 만을 지나서 인도와 극동으로 가는 무역선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들은 그들에게 일정액의 조공을 바치면 아랍인 영주들에게 자치를 허용하였다(Allen 1987, 34). 그들의 지배는 약 150년 간 지속되었다.

포르투갈인들이 오만을 점령한 것은 이곳에서 나는 물자와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량의 부를 취득할 수 있는 인도와 중국에 가기 위한 중간 기점으로서 이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오만은 포르투갈인들이 차지하기 쉽고, 유지하기 쉬우며, 또한 중간 기착지로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오만은 인도나 중국과 같이 다량의 물자와 물질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분명 아니었다.

2. 포르투갈의 오만 지배

오만에 대한 유럽인들의 첫 번째 도전이었던 오만에 포르투갈의 출현과 지배는 오만의 중세사가 끝내는 시점이 되었다. 포르투갈인들은 오만의 전 해안을 지배하였으며, 호루무즈는 그들의 정복지의 중심지가 되었다. 앞에서 파악한 것처럼 오만은 포르투갈인들에게 인도양에 가는 길에 존재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내지는 보급지가 되었다. 1521년 페르시아인의 사주에 의하여 반란이 일어났으나, 무스카트 아랍 지배자의 셰이크 라쉬드의 지지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1546년부터 오스만 해군의 활동이 걸프만에서 시작되었으나, 여러 차례의 전투를 하면서 오스만 해군이 결국은 포르투갈인들의 반격에 밀려 걸프만에서 물러났다(Allen 1987, 34). 포르투갈인들은 그들의 요새를 더

욱 강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당 기간 동안 오만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오스만인들을 격파한 후에 포르투갈인들은 얼마 동안 자신보다 더 강한 국가의 도전을 받지 않았다. 포르투갈인의 무력과 지배체제는 오만과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우세하였다. 그 당시 이슬람 제국 중에서 가장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한 오스만 제국도 걸프만이나 인도양 해상에서는 포르투갈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였으며, 페르시아는 오히려 포르투갈의 편을 들면서 그 힘을 이용하는 편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만과 그 주변의 토착 세력은 포르투갈에 복종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기득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신흥 해양국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등장과 함께 포르투갈은 걸프만에서 그들의 독점적 위치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미 포르투갈은 유럽의 신흥 강국의 등장과 함께 해상에서 그들의 해군력의 상대적인 약화와 기득권이 상실되어감에 따라 해군력에 의지하여 오만과 그 주변 지역을 장악 유지하기에는 역부족 상태이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걸프만에서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의 요새를 강화하고 오만 곳곳에 또다시 새로운 요새를 세웠다. 이렇게 새로 세워지거나 강화된 요새는 약해진 포르투갈의 군사적 열세를 어느 정도 극복시켜 주었고, 유럽의 신흥 해양강국들의 이 지역의 침투를 일정 기간 저지시켜 주었다. 또 1623년 페르시아가 침입하였을 때에 포르투갈의 무스카트 지배를 유지시켜 주었다. 무스카트는 그 이래로 긴 기간은 아니지만 포르투갈의 군사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Riphenburg, 1998, 29). 이 기간 동안 오만과 그 주변 지역에서의 포르투갈의 위치는 불안정하기는 하였으나, 크게 약화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직 포르투갈의 위치를 흔들 토착 세력의 본격적인 도전은 가능하지 않았다.

포르투갈의 오만 지배는 경제적 목적이 컸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적, 문화적으로 편협한 정책은 오만을 포함한 걸프만의 토착 세력이 그들에게 커다란 반발과 저항을 하도록 촉발하였다. 심지어 포르투갈인들은 그들의 뒤를 이어 진출하여 온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보다도 더 큰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여야만 하였다. 7세기 이후에 오만에서 사라졌던 기독교는 포르투갈인이 오만에 등장함과 함께 오만 땅에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하였었으나, 포르투갈인의 광신

적 태도와 반 이슬람적 행위로 말미암아 포르투갈인이 오만에서 추방되면서 더욱 철저하게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송경근 2004, 25).

IV. 포르투갈의 추방과 해양제국의 건설

1. 포르투갈인의 추방

나세르 이븐 무르쉬드(Nasir ibn Murshid)는 17세기 초에 오만을 지배하고자 하는 여러 명의 경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Owtram 2004, 44). 그는 여러 차례의 전투로 줄파르, 쿠리야트, 수르, 자아란 등을 점령하고, 무스카트와 수하르의 포르투갈인들을 고립시켜 나갔으며, 바니 힐랄 등지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진압하였다. 그는 다른 외세를 이용하기 위하여 영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인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공식적인 아닌 개인적이기는 하나 영국에게 몇 가지의 특권을 허락하고 무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영국과 오만간의 특별한 관계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런 우호적 관계 속에 술탄 나세르 이븐 무르쉬드는 현대적 전투선 몇 척과 화약을 영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Muhammad al-Rawas 1995, 381). 1649년 포르투갈의 추방과 오만 평정이라는 그의 노력은 성공을 앞두고 그의 죽음으로 정지되었다. 그는 그 자신이 오만에서 포르투갈을 몰아내지는 못했으나, 지금까지 분열 기운이 강하던 오만이 하나로 뭉쳐 외세를 물리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Muhammad Sabir Ibrahim 'Arab 1990, 196).

1650년 그의 조카이며 후계자인, 알-야오리바 왕조의 위대한 술탄 이븐 사이프 1세(Sultan ibn Saif I)는 포르투갈인들을 오만에서 쫓아낸다. 그는 그가 오만의 이맘으로 선출되어 그가 오만에서 제정의 모든 대표권과 권한을 손에 쥐게 되자, 전임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오만이 하나로 뭉쳐 외세를 물리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포르투갈을 오만에서 축출하고자 한다. 그는 그의

전임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무시하고, 포르투갈인들을 오만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포르투갈의 사령관은 술탄이 무스카트를 공격하는 동안 미라니 요새로 피하였다가 그 곳에서 술탄에게 항복하였다. 무스카트 항만에 있던 포르투갈 함대는 오만인의 손에 들어갔고, 잔여 포르투갈 수비대는 인도의 고아로 철수하도록 허용되었다.

원래 포르투갈은 인력 자원이 부족한 조그만 해양 국가이고 점점 힘이 약하여지고 있는 터라, 이미 그들의 물품 공급선인 그들의 주 무역로가 위협받지 않으면, 그들의 영역을 포기하고 있었다(Riphenburg, 1998, 29). 이미 쇠약해진 오만의 포르투갈인들은 거세져 가는 오만인의 도전을 감당할 수가 없었으며, 오만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떨어져 나가도 그들의 주무역로가 결정적으로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인도의 포르투갈령이나 본국에서의 원조도 없는 상황에서 오만의 포르투갈인들은 오만을 포기하는 것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수단이었다. 한편 오만인들은 포르투갈인들의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그들을 몰아붙여 그들의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오만인들은 오만의 독립은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의 추출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들이 아랍 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독립했다고 주장한다.

2. 해양제국의 건설과 발전

오만의 무스카트 탈환은 오만이 걸프와 인도양에 걸쳐 그들의 세력을 확산하기 시작함을 의미하였다. 오만의 상인들은 오만의 세력 확장과 함께 동아프리카 해안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심어가기 시작하였다. 강력한 외세를 물리친 오만인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해양 무역의 전통과 자질을 일거에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술탄 이븐 사이프 1세와 그의 후계자들 바라랍 이븐 술탄(Balarab ibn Sultan)(1679-1692), 사이프 이븐 술탄(Saif ibn Sultan)(1692-1711)은 포르투갈로부터 빼앗은 함대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후에 포획, 건조 등을 통하여 대폭 강화된 자신들의 함대를 만들었고, 여기에 수많은 유능한 아랍,

인도, 유럽계의 선원들을 끌어 들여 서부 인도양에서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알-야으리바조 함대를 만들었다. 허약해진 포르투갈은 오만의 해양 활동의 확대를 막을 수가 없었으며, 오만의 함대가 인도와 아프리카를 공격해도 미미한 반격만을 할 뿐이었다. 디우, 바싸인, 뭄바이, 수라트 등의 항구가 오만 함대의 공격을 받았다. 뭄바사는 5년간의 봉쇄 후에 알-야으리바조의 지배를 허용해야 했다. 더 나아가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도 오만의 공격을 받았고, 페르시아의 사파비조도 오만의 해적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업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Allen 1987, 37). 이 동안에 오만 해양 제국의 지배영역은 계속해서 확장되었고, 알-야으리바 왕조의 통치 기간 동안 그 영역은 쾰바, 잔지바르, 팻타, 킬와를 포함하며, 뭄바사에 파견된 지사가 통치하는 동아프리카 땅으로부터 1700년에 차지하게 된 바레인에까지 이르렀다. 오만의 성공은 페르시아, 네덜란드, 영국, 인도 등으로 하여금 오만의 대양 지배가 자신들의 무역의 이익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그 결과 오만의 활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이들 간의 동맹이 때때로 형성되기도 하였다(McBrierty, Vincent & Al Zubair, Mohammad 2004, 24). 이 동맹에 따라 프랑스는 걸프만, 영국은 남부 인도의 바다, 네덜란드는 홍해에 대한 항해 안전을 책임지었다. 이것은 소위 아랍의 해적 행위에 대한 그들의 항해 안전 조치였다(Muhammad Sabir Ibrahim 'Arab 1990, 208).

오만이 포르투갈을 축출한 후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해양제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신들의 오랜 해양무역의 전통과 해양술, 조선술 등도 분명 원인이 되지만, 포르투갈로부터 빼앗은 함대, 영국과 호혜관계 속에 주고받은 여러 가지 도움, 해양강대국들의 경쟁,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줄 아는 일처리 방식, 유능한 국가지도자들의 연속적 출현 등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오만의 원정 활동은 오만에게 새로운 부의 원천을 제공하였다. 또한 그들의 항구의 안전과 이익이 흔들림 없이 그들의 손안에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번영은 오만의 훌륭한 역사적 건물과 성채의 대부분이 이 시대에 지어지게 만들었다(오만정보부 2002, 18). 오만의 내륙과 해안은 서로 다른 자연 환경과 정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오만의 분열 요소가 되어 왔다. 하지만 원

정으로 쌓인 부는 내륙의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내륙지방과 해안 지방의 연결을 강화시켰다(McBrierty, Vincent & Al Zubair, Mohammad 2004,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세속적 지배와 이에 반발하는 보수적인 정통의 이맘 체제를 선호하는 세력 간의 갈등은 새로운 이맘 선출을 놓고 오만 종족 간의 내란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은 오만의 번영의 시대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만들었다. 1739년 이 틈을 이용하여 페르시아의 나디르 샤가 30척의 배에 대군을 싣고, 무스카트의 무역을 지배하려고 개입하여 왔으며, 오만 해안 지대의 주요도시가 그들에 의하여 다시 점령되었다(Husein Abd Ghanim Ghabash 1997, 122). 점령된 지역의 뛰어난 전략적 위치 및 교통의 용이 등과 경제적 가치 때문에 페르시아는 오만인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오만을 자국의 영토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특히 무스카트 항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오만을 그들이 포기하기에는 결코 적지 않았다.

소하르의 주지사였던 아흐마드 이븐 사이드(Ahmad ibn Said)는 페르시아의 공격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1744년 그들을 오만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오만의 주권을 회복하였으며, 루스타크를 중심으로 오만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알 부 사이드 왕조의 첫 번째 지배자로서 1749년 니즈와에서 이맘으로 선출되었다(Allen 1987, 40). 그는 이맘으로 선출된 후에 오만을 성공적으로 평정할 수 있었다. 그가 이맘으로 선출된 후 성공적으로 오만을 통일하여 안정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은 내륙과 해안지방의 환경의 차이와 분열의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분열의 요소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기에 더욱 안정적인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

아흐마드 이븐 사이드는 오만의 가장 중요한 해외 식민지였던 잔지바르에 주지사를 다시 파견하고, 오만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독립을 주장하는 동부 아프리카 해안의 스와힐리 지배자들에게 종주권을 인정시키고, 노예무역에 대한 세금과 일정의 조공액을 받아냈다(Allen 1987, 41). 이런 대내외의 효과적인 이맘의 정책은 무역의 진흥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도가 된 무스카트의 번영을 가져 왔다. 아흐마드 이븐 사이드가 이맘이 된 후에 오만의 대외 해양 활동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이맘의 적절한 사태 파악과 충돌 없는 오만

의 통합책, 이를 바탕으로 아흐마드 이븐 사이드의 정력적인 해양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강력한 오만의 해군과 상선단이 구축되었으며, 이것은 오만의 번영을 다시 회복시켰다. 그들은 국제무역 물품인 커피와 설탕을 사고팔아 엄청난 부를 얻었고, 그 이외에도 진주, 소금, 유황, 동, 비소, 향료, 사프란, 건과, 허브 등을 수출하여 이익을 취하였으며, 그 돈으로 그들이 필요한 의류, 목재 등을 수입하여 왔다. 해상 무역이 점점 더욱 중요하여지면서 해안 지방의 경제력이 내륙의 농경지를 압도하기에 이르렀으며, 1786년 오만의 수도는 공식적으로 내륙에서 무스카트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쯤 알 부 사이드 가는 종교적인 칭호인 이맘이라는 칭호대신에 세속적 권위를 나타내는 사이드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술탄이라는 칭호를 쓰게 된다.

오만은 거의 300년 동안 다른 걸프 만의 국가들보다 많은 것을 가진 독립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었다. 17세기부터 동아프리카로 확장하면서 성장했던 오만의 해양제국은 걸프의 어떤 소국들이 필적할 수 없었으며, 오만인들이 영국 상인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제공하였다. 걸프에서의 그들의 강력한 영향력과 해상로 장악은 늘 영국과 프랑스와의 대등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제국주의 물결 속에 그들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강대 세력과 정치적 유대를 지속시키면서 18세기말까지 번영하는 자신의 제국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오만은 그들과 육상으로 접했으며, 와하비즘으로 정신적 무장을 한 강력한 육상 세력인 사우디왕국과 싸움에서는 늘 굴종과 타협 아니면 영국과 같은 외세에 의존하여 위기를 벗어났었다. 이것은 해양 세력인 오만이 육지로 직접 공격하여 들어오는 강력한 육상 세력에게는 이길 수 없는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1807년 오만의 지배자가 된 사이드 이븐 술탄(Said ibn Sultan)에 의해 오만의 해양 제국은 그 절정기에 이르게 된다. 현대 오만인들은 그를 오만 제일의 군주로 간주하며, 아랍 현대사에서도 가장 빛나는 군주 중에 하나였다고 주장한다. 그가 오만의 지배가가 되었을 때에 그의 국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려는 부족들의 움직임, 걸프만의 해상권에 대한 라스 알-카이마 토후국의 도전, 사우디 아라비아의 와하비즘 추종자들의 오만의 중요 영토에 대한 탐욕과

알-브라이마 오아시스 점령, 당시 오만의 영토였던 페르시아의 반다르 압바스항을 접수하려는 페르시아의 시도 등으로 다소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면서 걸프만과 동부 아프리카 해역의 오만의 제해권을 확고히 확보했고,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오만의 중앙지배권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독립적 외교를 펼쳐나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오만의 활발한 해상 활동은 오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Wizarah al-'Ilam Sultanah 'Oman 1995, 453-454).

사이드 이븐 술탄은 오만의 해군과 상선단을 그의 손으로 대대적으로 현대화하였다. 그에 의하여 오만은 네 척의 프리게이트함, 네 척의 소형쾌속함, 두 척의 스루프함, 일곱 척의 쌍돛대 범선함, 각각 2에서 6문의 포를 가진 20척의 무장 상선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는 세계적 규모의 무역을 추구하였으며, 아라비아 반도 주변 해역에서 이익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많은 동부 아프리카 해안을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부 아프리카 영토에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하여 이 지역을 상인 연합 형태의 지역으로 운영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잔지바르는 동부 아프리카의 무역의 센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그의 정책들은 이 지역의 해양 무역 능력을 극대화하고, 동부 아프리카의 농업을 개발하고, 수출 능력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McBrierty, Vincent & Al Zubair, Mohammad 2004, 29). 궁극적으로 잔지바르는 오만의 관리 하에 무스카트와 함께 오만의 공동 수도가 되기에 이르렀다.

사이드 이븐 술탄의 이런 정치는 희망봉을 돌아가는 동서무역상의 오만의 해양 무역의 위치를 공고하게 만들고, 동부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에 쉽게 접근하고, 잔지바르의 수출 능력을 증가시키면서, 이 지역의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게 만들었다.

사이드 이븐 술탄은 영국,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과 국제관계와 상설 무역 거래 관계를 수행함으로써 오만 해양 제국의 위치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1840년 하지 아흐마드 이븐 나아만 알 카으비가 사절로 미국에 파견되어 갔으며, 1838년에 몸바사 주지사인 셰이크 알리 이븐 나스르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궁전에 파견되었으며, 1842년에 주영 오만 대사가 되었다

(McBrierty, Vincent & Al Zubair, Mohammad 2004, 30). 오만의 활발한 해양활동을 바탕으로 한 오만의 대외정책은 오만을 누구나 인정하는 부유한 해양 국가가 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대외관계의 발전을 위해 그는 오만의 커다란 이익을 안겨주던 노예무역을 억제하는 협정에 영국과 수차례 동의해야 했다(O'Sullivan, Edmund 2008, 232). 이것은 아무리 오만의 해양 활동이 활발하였더라도, 인구가 적은 소국 오만이 넘을 수 없는 정치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줄 아는 오만인의 일 처리 방식을 볼 수도 있다.

V. 해양제국의 분열과 추락

사이드 이븐 술탄의 지배하에 오만의 해양 제국은 그 절정에 이르렀다. 영토는 오만 이외에 페르시아, 걸프 만, 아시아 쪽의 인도양, 동부 아프리카 해안에 퍼져 있었다. 하지만 1856년 사이드 이븐 술탄이 세이셸 근처에 있던 프리게이트 함 빅토리아에서 사망하자, 오만의 해양제국의 빛나는 영광의 시기는 그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오만 해양제국은 그의 두 아들에 의하여 분열되었다. 하나는 사이드가 지배했던 아프리카 식민지였던 잔지바르로서 마지드 이븐 사이드(Majid ibn Said)가 지배하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의 오만 땅으로서 수와이니 이븐 사이드(Thuwayni ibn Said)가 지배하게 되었다. 사이드 이븐 술탄은 위대한 오만의 지도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의 후계자 문제에서는 분명히 커다란 실수를 하였다. 1833년 이래로 오만의 아시아 영토는 그의 큰 아들 수와이니 이븐 사이드가 그의 부친을 대신하여 지배하였으며, 1854년 이래로 잔지바르는 그의 둘째 아들이 그의 부친을 대신하여 지배하고 있었다. 이 두 아들의 그들의 지배영역에 대한 영향력은 확고하였다. 그들의 지배력의 확고함은 한 쪽이 다른 쪽에 병합되거나, 사이드 이븐 술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후계자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 결과 사이드 이븐 술탄의 능력 있는 두 자제는 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서로가

투쟁하게 되었으며, 이 투쟁은 오만 해양 제국에 결정적 해가 되어 돌아왔다. 탐욕스런 외세들은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중에도 가장 중요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였다. 이 두 나라는 식민지 쟁탈을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오만의 혼란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았다. 또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경쟁은 오만의 혼란과 분열을 더욱 부추겼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은 영국과 인도 간의 해상 무역로의 안전이 우선이었던 관계로 대체로 오만과 잔지바르가 분리된 상태에서 상황의 안정을 원하게 되었으며, 프랑스는 오만 본토와 잔지바르의 분쟁 사이에서 영토적 야욕과 새로 생긴 식민지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노예무역의 활성화 등을 원하였기에 오만과 잔지바르 중에 어느 한 편을 들면서 자꾸 분란을 야기 시키는 편이었다. 이중에 해상력이 강하며, 이 지역에 영향력이 프랑스보다 강하였던 영국의 정책이 성공하여 1860년 오만과 잔지바르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Wizarah al-'Ilam Sultanah 'Oman 1995, 474-475). 이 협정을 통하여 오만 해양 제국의 유산의 공정한 분배와 양 지역은 사이드 이븐 술탄의 자손들이 지배한다는 원칙을 정하여졌다. 이를 바탕으로 훨씬 더 많은 무역의 이익을 얻고 있던 잔지바르는 일정한 액수의 재정적 원조를 매년 오만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협정은 다소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상당 기간 그대로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오만과 잔지바르 간의 분쟁은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오만과 잔지바르가 분리된 상황에서 상황의 안정과 고착화는 결국 잔지바르의 아랍적 요소보다는 블랙 아프리카적 요소가 강화되면서 잔지바르가 오만으로부터 영구히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거기다가 잔지바르 지배자의 오만과 잔지바르 간의 교역의 억제, 걸프만 상인들의 장기간 거주를 막기 위한 그들에 대한 잔지바르 주민들의 주택 임대 금지, 상호간의 우애를 유지하여 주던 선물 제공의 정치 등의 정책은 잔지바르와 오만 간의 연관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Wizarah al-'Ilam Sultanah 'Oman 1995, 476).

잔지바르가 떨어져 나간 오만은 무스카트와 내륙 오만이 내륙의 보수적 부족이 자신의 이مام을 선출함으로써 갈라지게 되었다. 엄격한 이바디 파인 내륙

의 보수적 부족이 볼 때에 무스카트 술탄 측은 너무 자유로워지고 있었으며, 세습적인 술탄제는 이바디 파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다.

19세기 내내 오만에서 이맘과 술탄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오만의 이맘은 내륙 지방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술탄의 명령은 내륙을 파고들지 못하였다. 1868년부터 1871년까지 아잔 이븐 까이스('Assan ibn Qais)는 술탄과 이맘 직을 모든 겸하였으나, 이런 일은 드문 것이었다. 1856년 사이드 이븐 술탄 죽음 후에 해양 제국의 분열은 무스카트가 해양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19세기 후반에 오만은 경제적으로 침체하게 되었다. 또 1860년대 증기선의 출현은 증기선을 제작할 수 없는 오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여 홍해를 통하여 선박들이 희망봉 항로보다 짧은 항로를 이용하는 것은 중간기착지로서의 오만의 역할을 감소시켰다. 결과 19세기 후반에 오만은 경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점차 침체되어 갔다. 이것을 기회로 하여 영국은 협약과 보상금으로 오만이 노예와 무기무역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술탄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으며, 이 때문에 술탄은 내륙을 지배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고, 오만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결국 오만은 영국의 보호국이 되어 술탄의 많은 고문들이 영국인이 되었으며, 오만의 군대는 영국 장교에 의하여 지휘를 받게 되었다. 오만의 이런 점진적 쇠퇴는 계속되다가 1980년대에 석유와 천연 가스 개발이 본격적으로 오만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바뀌게 된다.

VI. 결론

오만은 비록 아라비아 반도의 조그만 변방 국가이나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으로 진출하여 동서무역의 무역로를 장악하였던 포르투갈은 중간기착지로서 오만의 가치를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16세기 초에 오만을 점령하고, 이 일대를

지배하면서 오만을 그들의 해상 무역 기지로 이용 했다. 대포를 장착한 전함으로 무장한 포르투갈의 압도적 무력 앞에 오만인들은 무릎을 꿇기는 하였으나 점차 분열된 자신들을 합하여 1650년 알-야으리바 왕조의 술탄 이븐 사이프 1세의 지휘 하에 포르투갈을 오만에서 축출 할 수 있었다. 외세 침입이라는 도전을 극복한 오만인들은 포르투갈을 축출한 후에 그들의 해양 무역의 전통과 자질을 일거에 배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출하여 오는 유럽의 해양 열강들과 경쟁하면서 걸프와 인도양에 걸쳐 그들의 해양 세력을 펼쳐 나갔다. 그러나 이렇게 해양 제국이 뻗어나가면서 세속적인 해양 제국주의자와 오만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바디파의 보수 세력 간의 알력은 뻗어나가던 해양 제국을 혼란 속에 빠뜨렸고,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침입을 일으켰다. 1794년 현 왕조인 알 부 사이드의 첫 번째 지배자 아흐마드 이븐 사이드가 페르시아를 오만에서 축출하자 오만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해안의 해양 세속 세력과 내부의 이바디파의 전통 고수 세력 간의 충돌로 제국은 약화되었으며, 영국에 점차 기대다가 아예 영국의 보호 하에 들어갔다.

오만이 조그만 소국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프 만의 소국들과는 다르게 해상 무역의 지도적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오만의 해양 무역의 전통, 과거에 융성하였던 조선술과 항해술, 해양교통의 요지에 위치, 천혜의 항구 등이 작용하였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그들이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들과 협력할 줄 아는 유연성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근세 오만 지배자들은 오랜 해상 국제 무역을 통하여 주변의 국제 정세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노력과 자국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함을 바탕으로 자국 주변에서 다투는 여러 외국 세력 중에 자신에게 유용하면서도 강력한 세력을 잘 선택하여 그들의 동맹자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여 왔다.

한편 오만은 외세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세속적 해양 세력과 보수적 종교 세력이 합쳐지고, 일단 성공하여 부를 쌓지만, 내정이 안정이 되면 두 세력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오만인들이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받아들이는 해양민족적 기질과 가장 보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카와리즈파의 분파인 이바디파를 따르는 사람이 다수를 이루며, 이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만의 역사에 늘 존재하는 오만의 갈등 요소이다. 이런 갈등 요소는 오만의 지난 역사와 평야의 해안지대와 내부 산악지대의 지리적 환경 차이, 그리고 오만 사회를 지배하는 특이한 이슬람 소수 종파가 만들어낸 종교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오만의 이 갈등 요소는 오만의 혼란과 쇠락의 원인이 되어 왔다.

주제어: 오만, 이맘, 알-야으리바조, 알-부사이드조, 잔지바르

참 고 문 헌

- 송경근(2004). “ 오만의 이슬람과 그 전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4-2집, 15-31.
- 양승윤 외 다수가 지음. (2003). *바다의 실크로드*, 청아출판사.
- 오만 정보부. (2002). *오만 2002-2003*.
- 왕지아평 외 7인 지음, 양성희·김인지 번역. (2007). *대굴국기*, credu.
- 카이, 베른하르트 저, 박계수 옮김. (2006). *항해의 역사*, 북폴리오.
- Allen, Calvin H. (1987). *Oman, The Modernization of the Sultanate*, Boulder: Westview Press
- Al-Liwat, Habib. (2001). *Malu Lahi, Tarikh Oman*, Muscat: al-Wajhi al-Bahri Limadinah Muscat.
- Husein Abd Ghanim Ghabash. (1997). *Oman*, Bayrut: Dar al-Jaddid
- McBrierty, Vincent & Al Zubair, Mohammad. (2004) *Oman Ancient civilisation: Modern Nation*, Muscat: The Bait Al Zubair Foundation LLC.
- Muhammad al-Rawas, "'Abd al-'Aziz. (1995) *Oman fi al-Tarikh*, Musqat: Immel Publishing.
- Muhammad Sabir Ibrahim 'Arab. (1990). "Dawlat al-Ya'arubah baina al-Wahdah al-Wataniyah wa al-Intisaaraat al-Kharijiyah, Al-Magalat al-Tarikhiah al-Misriyah, Al-Mugallad 37, 183-217.
- O'Sullivan, Edmund. (2008). *The New Gulf*, Ajman: Motivate Publishing
- Owtram, Francis. (2004). *A Modern History of Oman*, London: I. B. Tauris
- Rippenburg, Carol J. (1998). *'Oman, Political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London: Praeger
- Wizarahal-'Ilam, Sultanah 'Oman (1995). *'Oman fi al-Tarikh* London: Dar

Amil Li-Nashr



송경근

소 속 조선대학교 아랍어학과

이메일 gksong@empal.com

논문접수일	2010년 5월 8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11일